

학습만화 번역에서의 ‘선택적 전유(Selective appropriation)’ 현상 고찰 — 사회분야 학습만화의 한중번역 사례를 중심으로

강 경 이
(이화여대)

1. 들어가며

소위 학습만화(educational comics)는 지식과 정보를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의 만화를 일컫는다. 강현주(2009: 37)에 따르면 글과 그림의 상보적 관계를 통해 수용자인 아동 독자들에게 관심과 흥미를 일깨우며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에듀테인먼트 콘텐츠의 일종이다. 이처럼 시각적 도상기호와 스토리텔링 기법을 동원하여 어려운 학습 개념을 재미있게 풀어내어 자연스러운 지식 흡수에 도움이 된다는 ‘인지적 용이함’ 덕분에 국내 교육시장에서 학습만화는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꾸준히 선호되고 있다.¹⁾ 이러한 높은 선호도 때문에 출판사들은 학습만화의 주제 영역을 확장시키고 보다 적극적인 기획과 마케팅을 내세워 다양한 형식의 학습만화 시

리즈물들을 선보여 왔다. 당초 국내 학습만화 시장은 1987년 이원복의 『먼나라 이웃나라』를 시작으로 서서히 주목 받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 『만화로 보는 그리스로마신화』, 『마법천자문』, 『서바이벌 만화 과학상식』, 『Why?』 시리즈 등 양질의 학습만화 콘텐츠들이 봇물을 이루면서 학습만화 시장이 급성장했고(백은지 2011: 4; 이승진 2014: 132), 그 강세와 열기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 내 양질의 학습만화 콘텐츠들의 수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 출판시장에서도 이미 시중에 출간된 한국 학습만화 번역서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김선남(2016)의 연구를 통해서도 한국의 대중국 수출 출판물 중 아동도서, 그 중에서도 학습만화 관련도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시장에서 한국 학습만화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의미인데, 이는 한국 아동도서가 지닌 다양한 콘텐츠와 세련된 디자인 덕분이다(김선남, 2016: 343). 다만 대부분의 아동도서가 그렇듯 학습만화 또한 아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적 목적이 강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번역, 출간 과정에서 도착어 문화권 시스템 내 지배적 규범의 영향을 받는다. 과학이나 수학 등 보편적 지식 체계를 다룬 학습만화는 번역과정에서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좀 덜하겠지만, 특정 국가의 문화나 역사를 다룬 사회 분야 학습만화의 경우 출발어 문화권 저자의 기준과 관점으로 서술된 내용이 도착어 문화권 내에서 보편적으로 내세우는 기준과 상충되거나, 정보 가치가 상이하거나, 친소관계 및 역학관계가 달라진다거나 하는 경우들에 종종 봉착하게 된다.

- 1) 2017년 천재교육 빅데이터연구소가 초등학생 학부모 300명을 대상으로 학습만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자녀가 학습만화를 읽는 것에 대해 86%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유로는 ‘학습에 도움이 되어서’가 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호기심의 폭을 넓혀줘서’(33%), ‘독서습관을 붙여줘서’(13%), ‘아이가 좋아해서’(9%) 등의 결과가 나타났다(<http://www.segye.com/newsView/20170430001296>, 세계일보 기사 참조). 백진환, 한윤옥(2011: 219)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만화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학습만화에 대한 흥미가 매우 높다고 밝혔으며, 학생들이 학습만화를 읽는 이유로 ‘지식, 상식 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재미있어서’ 등의 이유를 꼽았다. 이종문(2012)은 초등학생과 학부모 두 그룹을 대상으로 학습만화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바 있는데, 두 그룹 모두 학습만화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으며, 초등학생들은 ‘학습만화가 정보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에 가장 높게 응답한 반면, 학부모들은 ‘관심분야의 정보와 지식을 전해준다’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러한 경우 출판물의 도착어 텍스트가 최종적으로 과연 어떤 형태로 재현되는가에 관한 궁금증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 분야의 학습만화가 출발어 문화권 구성원들의 이데올로기와 관점이 암묵적 혹은 명시적으로 배어있는 장르임을 전제로 하여 사회 분야 학습만화의 한중 번역에서 드러난 텍스트 상의 선택적 전유 현상들과 그 사회적 원인에 대해 비판적 담화분석의 틀을 적용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학습만화의 기능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제공하는 만화용어사전²⁾에 따르면 학습만화는 '독자에게 교양이나 학습적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만든 만화'이며 '주로 교육적 내용을 담은 어린이 대상 만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김승민(1989: 17)은 학습만화를 '학습에 유용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중적인 형태로 제작되어 하나의 학습뿐만 아니라 다른 학습에도 흥미를 갖도록 동기유발의 능력을 길러주어 학습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가는데 도움을 주는 만화'라고 정의했으며, 노은혁(2006: 95)은 일반만화가 스토리 위주의 재미와 감동에 치중하는 것과는 달리 학습만화는 학습 기능을 발휘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차별화된 표현 형식을 갖추어 기획된 것이라고 구분 지었다.

상술한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습만화는 어린이와 학생을 주요 독자군으로 설정하여 학습적 측면에 우선순위를 둔 장르인만큼 텍스트 자체의 교육적 활용 기능이 그 어느 장르보다 두드러진다. 줄글 책 거부, 독서 편식, 표현력 향상 제약 등 일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국내에서는 학생들의 지식 확장을 위한 동기 유발용 혹은 입문용 도구로 이미 학습만화가 적극 활용되고 있는 추세다. 이는 국내 아동서 판매 순위에서 학습만화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³⁾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짐작이 가능하다.

2) 디지털만화 규장각 <만화용어> 참고

http://www.komacn.kr/dmk/manhwatong/word_view.asp?scidx=57

학습만화의 교육적 활용가치에 대해 논한 기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임현태(2000: 27-29)는 만화의 유머와 해학, 기승전결을 가진 함축적 그림 등이 관심과 흥미 유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학습만화가 학생들을 별다른 저항 없이 학습목표로 끌어들이는 유용한 매체라고 보았다. 또한 그림과 문자를 병행 사용하므로 동일한 지식이라도 전달이 훨씬 수월하고, 습득한 정보를 뚜렷하게 오래 각인시킨다고 했다. 박형진(2002: 27-37)은 교수 학습매체로써 학습만화가 지니는 기능에 대해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사실을 시각적이면서 맥락적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는 점,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교수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 정확하고 간결한 메시지, 완전한 구어체 사용으로 현장감과 현실성이 높아 학습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심수민(2007: 6-9)은 학습만화가 어린이에게 교육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전, 역사사건, 과학 등에 관한 내용을 재미있고 쉽게 극화시켜 지식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을 기를 수도 있다고 보았다. 강현주(2009: 37-38)는 학습만화가 수용자인 어린이에게 관심과 흥미를 일깨워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며, 글과 그림의 상보적 관계를 통해 글의 어려움은 그림으로 극복하고 그림의 다의성은 글을 통해 구체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화의 교육적 활용성을 기호학적으로 접근한 이동우 외(2002: 81)는 학습만화가 언어와 시각 두 기호의 상호작용이 담화상황과 맞물리게 구성되어 있어 의미를 보다 적확하고 풍부하게 구축할 수 있게 도와주며,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과 상상력을 유발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상기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학습만화의 교육적 효과를 크게 첫째, 학습 동기 및 지적 호기심 유발, 둘째, 효과적인 전달력을 통한 인지 촉진 및 지식 흡수 속도 향상, 셋째, 지속적이고 선명한 각인 효과, 넷째, 연속적 연상활동에 따른 풍부한 상상력과 구성력 배양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학습만화’만이 지

-
- 3) 2018년 1월 26일 기준 온라인 서점 예스24와 알라딘 아동도서 베스트셀러 100위권 내에 진입한 도서들을 검색한 결과 학습만화 장르에 해당하는 도서가 각각 50권과 42권이었다. 최근 학습만화에서 다루는 주제의 폭과 깊이도 더욱 넓고 깊어지고 있는데, 인문, 사회, 과학, 어학, 수학, 코딩 등 교과과정 내 소재는 물론 그 외 상식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실용 소재들이 학습만화의 주제가 되고 있다.
- 4) “만화의 기본단위는 칸이다. 칸 안에는 말풍선과 효과음 같은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

닌 특수한 장르적 특성들, 즉 재미와 극적 요소를 더한 스토리 전개식 학습, 언어기호와 도상기호의 상호보완적 작용에서 기인한 것이다. 류반디(2011: 134-135)는 만화의 독서효용성을 크게 ‘몰입과 이완의 효과’, ‘전체적 조망과 속도감’ 두 가지로 정리했다. 즉, 스토리나 캐릭터, 회화적 요소들이 독서 중에도 지속적으로 독자들을 이완시켜 점차 몰입하게 만드는 한편, 활자매체에 비해 인식 과정이 단순하고, 말주머니 속 대사가 만화 독서의 속도감을 상승시켜 주는 것이 독서매체로서 학습만화가 지닌 강점이다.

따라서 학습만화는 개개인의 독서 자료로 읽혀질 뿐 아니라 기관 내 학습 교재나 참고교재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교육적 활용 가치 덕분에 국내 학습만화들의 해외 저작권 수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WHY?’ 시리즈(역서명: 《WHY?系列》), ‘먼나라 이웃나라’ 시리즈(역서명: 《漫画世界系列》), ‘메이플스토리 수학도둑’ 시리즈(역서명: 《冒险岛数学奇遇记》), ‘내일은 실험왕’ 시리즈(역서명: 《科学实验王》), ‘살아남기’ 시리즈(역서명: 《绝境生存系列》), ‘보물찾기’ 시리즈(역서명: 《寻宝记系列》) 등이 번역되어 호평을 받고 있다. 다음으로는 본고에서 학습만화 텍스트 분석에 적용할 ‘선택적 전유’ 전략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2 번역에서의 수용자 지향적 다시 쓰기

– ‘선택적 전유(Selective appropriation)’

로제 샤흐티에(Roger Chartier)는 ‘한 개인이나 집단이 어떠한 텍스트나 상징, 표상을 특정 목적을 위해 나름대로 소화하고 재창조하는 문화적인 행위’를 ‘전유’라 정의하고 있다.(김혜진 1999: 8에서 재인용) 한편 폴 리콤폴르(Paul

어 만화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읽는 이는 말풍선 안의 대사를 스스로 연상하며 자신의 감정으로 받아들인다. 또 영화의 사운드에 해당하는 효과음을 떠올리며 칸 안의 상황을 더욱 실감나게 연상하게 된다. 만화에서 칸은 시간과 공간의 이동을 의미한다. 연속적인 칸의 이동은 필연적으로 읽는 이의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읽는 이가 만화를 완성해가는 셈이다. 만화의 연상활동은 읽는 이의 적극적인 참여활동이고, 만화라는 주어진 텍스트를 자신의 감성으로 이해하고 구성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구성주의 교육의 정신과 닮아 있다.” 출처: 한겨레신문 기사 <만화의 연상 작용, 자연스레 생각 살찌우죠>(2006년 1월 22일자)

Recour)에게 ‘전유’란 “텍스트와 소격화(distanciation)를 통해 저자의 의도와 감정적 유사성 없이 거리를 둔 이해를 구성함으로써 텍스트의 구조적 객관성을 매개하는 것”이다(장세룡 2016에서 재인용). 즉, 전유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타인의 이질적인 텍스트를 자발적인 이해를 통해 자기화하는 과정인 셈이다. 이처럼 텍스트를 전유하는 방식은 개개인이 독서에서 얻고자 하는 기대, 지적능력, 공동체 내의 제도, 관습, 이해관계, 해석의 틀 등 여러 요소들에 따라 그 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문화비평용어사전>에서는 ‘전유’에 대해 ‘어떤 형태의 문화자본을 인수하여 그 원 소유자에게 적대적으로 만드는 행동’이라는 다소 극단적이고, 전복적인 정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한 기호가 놓여 있는 맥락을 변경함으로써 그 기호를 다른 기호로 작용하게 하거나 다른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을 ‘재전유(re-appropriation)’ 혹은 ‘재의미작용(re-signification)’이라는 별도 용어로 구분 짓고 있다. 결국 이문화 간의 번역 행위 자체도 출발어권 텍스트를 도착어권으로 이식하고, 그 과정에서 변형이나 재가공작업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전유’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번역학에서는 모나 베이커(Mona Baker, 2006)가 번역에서의 내러티브 프레임임을 다루면서 ‘선택적 전유(Selective appropriation)’ 현상에 주목한 바 있다. 베이커는 기존 학자들의 선행 연구 분석 사례들을 중심으로 번역에서의 내러티브 변형 현상(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는데, 세부 유형 중 하나로 ‘선택적 전유’를 비중 있게 다루었다. ‘선택적 전유’는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원문에 내포된 내러티브의 특정부분을 강화, 약화, 미화하기 위해 생략이나 추가를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텍스트의 전유’라고 정의된다(Baker 2006: 114). 미국 워싱턴 중동미디어연구소(MEMRI)가 특정 집단에 대해 극단주의적이고 범죄적인 이미지를 드러내는 내러티브를 채택한 사례가 전형적인 선택적 전유에 해당된다. 베이커가 언급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중동미디어연구소는 아랍인의 인격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기사를 선별해 번역하거나, 이스라엘 점령 반대자들을 ‘종교적 극단주의자(religious extremists)’ 혹은 ‘반유대주의자(anti-Semites)’로 보여질 수

5) 베이커(2006)가 제시한 번역에서의 내러티브 변형 유형으로는 ‘시간적, 공간적 프레임링(temporal and spatial framing)’, ‘선택적 전유(selective appropriation)’, ‘이름 붙이기를 통한 프레임링(framing by labeling), ‘참여자의 위치 재설정(repositioning of participants)’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선택적 전유’ 현상을 중점을 두어 기술한다.

있도록 아랍매체의 기사를 선택적, 탈맥락적으로 발췌하여 출판에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Baker 2006: 73-75). 즉, 선택적 전유는 도착어 텍스트 제작자 및 사용자들이 도착어 문화권의 제도적 틀이나 이데올로기, 수용자들의 가치관, 요구 방향 등에 따라 출발어 텍스트를 선별, 발췌하고, 재가공하는 현상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택적 전유는 문학 장르의 번역에서도 관찰되는데, 특히 로페즈(Lopez, 2000)의 연구는 아동문학 번역에서 관찰되는 선택적 전유의 양상을 잘 대변해준다. 로페즈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로알드 달(Roald Dahl's)과 에니드 블라이언트(Enid Blyton)의 영어 원작이 현행 공적 내러티브에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인종차별적이나 국수주의적인 요소들을 정제하여 개정판을 냈지만, 이들 텍스트에 대한 스페인어 번역은 원문 내러티브의 온전한 구성요소들을 그대로 남기는 경우가 많았다. 에니드 블라이언트 모험 시리즈의 스페인어 번역본과 프랑스어 번역본 비교 결과, 프랑스어 번역에서는 이국적 요소들을 텍스트 내로 투과시키지 않고 삭제하거나 원문보다 덜 현학적인 텍스트를 만들기 위해 명시적으로 텍스트를 확장하는 현상들이 종종 관찰되었던 반면 스페인어 번역은 원문을 존중하고 출발어 문화권의 문화적 요소들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로알드 달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 개정판에서도 공장 노동자들의 민족적 뿌리를 언급하는 장면이 삭제되었으나 스페인어 번역본에서는 초콜릿색과 연결지어 원작 초판에 충실하게 그대로 재현된 것으로 드러났다. 로페즈는 이러한 현상을 보인 배경에 대해 당시 스페인에 인종주의에 대한 화두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으며, 스페인의 아동문학 시스템 자체가 외부 모델을 적극 통합시키는 등 침투성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Lopez 2000, Baker 2006: 115)

샤빗(Shavit)이 언급한 『로빈슨크루소』의 독일어 버전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새롭게 각색된 사례 역시도 선택적 전유의 또 다른 전형이다. 당시 『로빈슨크루소』를 독일어로 번역한 캄페(Campe)는 독일이 지향하는 루소의 교육적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적극 수정하였는데, 인간 개인이 자연 속에서 한계를 극복하며 싸워내는 이미지를 부각시킨 반면 루소의 견해와 상충되는 부르주아적 요소들은 배제하는 등 원작의 기존 셋팅에 많은 가감을 시도하였다.(Shavit 2006: 38).

요컨대 ‘선택적 전유’는 ‘텍스트가 국경을 넘어 다른 문화권으로 이식되면서 새롭게 바뀐 사용자와 소비자들에 맞추어 변주되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출발어 텍스트의 내러티브가 번역을 거쳐 도착어로 전환되면서 삭제, 수정, 추가 등의 변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텍스트와 모든 번역은 그들의 독자와 청자를 향해 있으며, 모든 독자와 청자도 그 텍스트를 향해 있다”고 했던 오이티넨(Oittinen 2006)의 언급에 그 해답의 실마리가 담겨 있다. 번역본은 도착어 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으며, 도착어 문화권에서의 역할 및 가치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 결국 도착어 텍스트가 최종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은 도착어 문화권 독자들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곳 또한 도착어 문화권이기 때문이다.

타언어로의 번역 과정에서 이 같은 선택적 전유 현상이 불가피한 이유를 되짚어보면, 담화가 사회, 문화와 변증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비판적 담화 분석(CDA)의 출발점과 맞닿는다. 페어클러프(Fairclough)는 담화를 ‘사회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적 실행으로서의 언어’로 규정한 바 있으며, 담화 역시 사회적 구조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Fairclough 1989, 이원표 2015에서 재인용). 그는 사회적 실행으로서의 담화와 사회적 구조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변증법적 관계를 가지면서, 사회적 연속성과 사회 변화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크리스 바커(Chris Barker)와 다리우시 갈라신스키(Dariusz Galasinski)의 저서(2009: 100-101)에서는 담론이 사회적으로 설정됨을 전제하면서 담론적 행위가 사회적 조건의 태동과 구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사회적 현상을 복원, 정당화, 영속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담론에서 실재를 재현하는 구조는 필연적으로 선택이라는 과정을 수반하는데, 그 실상의 어느 측면을 포함할 것인지, 어떻게 나열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반영되며, 각각의 선택은 사회적으로 각인된 가치의 공유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한다(102).

이처럼 사회적 틀에 따라 새롭게 전유되고 재구성되는 것이 텍스트의 기본 속성이라면, 번역을 통해 새로운 문화권으로 편입되는 텍스트들은 더더욱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변화를 겪게 마련이다. 번역 텍스트도 도착어 문화권 내에서 하나의 담론 기제로 기능하게 되는 만큼 그 사회에서 작동되는 메카니즘과 이데올로기, 가치 구조 등에 들어맞게 ‘다듬질’된다. 이러한 텍스트 담화의 재구성 현상을 둘러싸고 기존의 비판적 담화 분석 연구자들은 주로 미디어 담화들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해 왔다. 그러나 앞서 제시된 사례들에서 보여지듯이 아동, 청소년을 목표독자로 하는 장르에서도 ‘선택적 전유’ 현상은 빈번하고도 명

시적으로 관찰되고 있으며, 본 연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사회 분야 학습만화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 및 학습 매체로서의 기능을 가진 장르이므로 그 교육적 가치나 목표가 그 어느 장르보다 두드러진다. 나아가 외국의 학습만화를 번역해 특정 국가에서 활용하는 경우라면 원본의 교육적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도착어 독자들의 교육적 수요, 도착어 문화권의 교육 패러다임 등도 반영되어야 하므로 텍스트 간 전이 과정에서 조정의 폭이 꽤 크다. 그럼에도 학계에서는 아직까지 학습만화 장르의 번역을 다룬 연구들이 드문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전현주(2009)가 학습만화 『먼나라 이웃나라: 우리나라 편』의 한영 번역본을 역자의 가시성 관점으로 분석한 연구가 유일하다. 한국 학습만화의 해외 출판이 활발해짐에 따라 학습만화 장르에 대한 번역학적 고찰이 본격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3. 텍스트 분석 개요

본 연구에서는 번역에서의 ‘선택적 전유’ 현상에 대해 베이커가 제시한 개념적 정의를 기본적으로 차용하되, 그 현상의 이면에는 담화가 ‘우리(we)’, 즉 ‘내집단(in-group)’에 ‘유리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성된다는 비판적 담화분석의 전제가 반영되어 있다고 간주한다.

반 다이크(van Dick)는 이념(ideology)이 기득권층의 이익을 유지하고 집단의 인식을 조직,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말과 글에도 각 사회의 이념이 투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대개 화자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우리(we)’, 즉 ‘내집단(in-group)’은 되도록 긍정적으로 표상하고, ‘그들(they)’, 즉 ‘외집단(out-group)’은 가급적 부정적으로 등장시키는 방식으로 자신과 타인들에 대한 이념적 이미지를 구축한다(van Dick, 1997: 31-33). 반 다이크가 이러한 이념의 양극성을 반영하여 제시한 ‘이념적 사각형(ideological square)’은 다음과 같다.

〈표1〉 반다이크의 이념적 시각형 (T.A., van Dick, 2011: 396 재구성)

	긍정적 정보	부정적 정보
우리	표현하거나 강조(+)	억제하거나 축소 (-)
그들	억제하거나 축소 (-)	표현하거나 강조 (+)

이러한 이념의 양극화 경향이 텍스트 상에 표출된 담화전략을 일컬어 이른바 ‘긍정적 자기 제시(positive self-presentation)’와 ‘부정적 타인 제시(negative other-presentation)’라고 부른다(이원표 2015: 55-56). ‘우리’가 속한 집단에 대해서는 보다 더 긍정적으로, ‘타인’이 속한 집단에 대해서는 보다 덜 긍정적으로 기술하는 이러한 담화 경향은 텍스트가 다른 언어로 변환되는 번역 행위에서도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본 연구는 도착어 텍스트가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해 이분화된 담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비판적 담화분석의 관점을 도입하여 국내 사회 분야 학습만화의 중국어 번역본에 드러난 선택적 전유의 양상들을 유형화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한다. 분석 대상은 아래 제시된 바와 같이 특정 국가의 역사, 지리 등을 다룬 국내 사회 분야 학습만화 5권과 해당 중국어 번역서이다.

- 『새로 만든 먼나라 이웃나라-우리나라』, 이원복 글/그림, 김영사(2012)
→ 漫画世界系列『漫画韩国』, 千太阳 译, 中信出版社(2015)
- 『새로 만든 먼나라 이웃나라-미국3, 대통령편』, 이원복 글/그림, 김영사(2012)
→ 漫画世界系列『漫画美国总统』, 千太阳 译, 中信出版社(2015)
- 『새로 만든 먼나라 이웃나라-일본1, 일본인편』, 이원복 글/그림, 김영사(2012)
→ 漫画世界系列『漫画日本人』, 千太阳 译, 中信出版社(2015)
- 『Why? 세계사 일본』, 전재운 글 / 최병국 그림, 예림당(2011)
→ 『Why? 近看世界 日本』, 邱慧雅 译, 北京聯合出版公司(2014)
- 『Why? 세계사 미국』, 남춘자 글 / 크레파스 그림, 예림당(2011)
→ 『Why? 近看世界 美國』, 王延紅 译, 北京聯合出版公司(2014)

특정 국가 주제의 사회 분야 학습만화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비판적 담화 분석 관점에서 그간 다루어지지 않았던 장르에 대한 분석 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 둘째 학습만화 자체가 지닌 교육적 기능 때문에 도착어로 전환 시 텍스트적 변이가 상대적으로 유효적일 것이라는 판단, 셋째, 사회 분야

학습만화의 경우 동일 대상, 사건에 대한 국가 간 입장차, 시각차가 존재하므로 과학, 기술 등 보편적 지식 분야에 비해 가치 개입이나 주관성 이입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분석대상을 학습만화 텍스트 내 내러티브에 국한하여 구절, 문장 흐름 및 짜임의 변이에 주목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내러티브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시각적 요소 측면의 일부를 포함하였다.

중국어로 출간된 번역서를 한국어 출발어 텍스트와 비교 분석한 결과, 특정 부분을 강화, 약화, 미화하기 위해 생략, 추가, 변형을 시도하는 형태의 '선택적 전유' 전략이 채택된 상황들이 적지 않게 관찰되었으며, 구체적인 세부 유형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선택적 전유' 전략의 실행 목적은 크게 1)텍스트 수용권의 집단기억⁶⁾을 유지, 계승하기 위한 목적과 2)텍스트 수용자의 관점에서 더 필요한 정보로 대체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류해볼 수 있었다.

〈표2〉 학습만화 한중번역에서의 선택적 전유 전략 유형 분류

분류		세부 유형
1	텍스트 수용자의 집단기억 유지, 계승을 위한 선택적 전유	1-1. 내집단 긍정화
		1-2. 외집단 부정화
2	텍스트 수용자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한 선택적 전유	2-1. ST 맥락과 유사한 내집단 내 매개물로 대체
		2-2. 중국 기준 데이터로 수정

6) 모리스 알박스(Maurice Halbwachs)가 최초로 개념화한 '집단 기억'은 '사회적으로 매개되는 기억', 즉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과거에 대한 기억을 의미한다. 정체성 형성에 깊이 관여하는 집단 기억은 사회적 맥락에 따라 구성과 재구성의 과정을 계속 거치는데, 그 재구성 과정은 특별히 기억해야만 하는 과거에 대한 의무를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집단기억이 집단성 혹은 사회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어떠한 형식을 통해 매개되어야 한다(태지호 외 2014: 90/92). 이러한 집단 기억은 안 아스만, 알라이다 아스만이 '제도적으로 공고화되고 조직적으로 전승화되는 기억'이라는 의미로 제시한 '문화적 기억(cultural memory)' 개념, 배리 슈워츠(Barry Schwartz)의 '사회적 기억', 피에르 노라(Pierre Nora)의 '기억의 터' 개념들과 일맥상통한다(태지호 외 2014: 93-95).

첫 번째 대분류인 ‘집단기억 유지, 계승을 위한 선택적 전유’는 도착어문화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에 대한 기억과 현재 지배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이데올로기 틀에 맞추기 위해 시도되는 변이 유형이다. 이는 세부적으로 ‘내집단 긍정화’, ‘외집단 부정화’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두 번째 대분류인 ‘텍스트 수용자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한 선택적 전유’는 학습만화 번역 텍스트가 도착어 독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유용한 교육 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내용적으로 조정이 가해지는 변이 유형이다. 즉, 원문 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출발어 텍스트를 도착어 독자들에게 교육상 더 필요한 정보들로 추가, 대체하는 등 재맥락화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들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ST 맥락과 유사한 내집단 내 매개물로 대체’, ‘중국 기준 데이터로 수정’ 두 가지 유형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내집단 독자들에게 번역 텍스트가 지니는 정보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번역 주체의 의도적 개입인 셈이다.

그렇다면 앞서 제시된 ‘선택적 전유’의 양상들이 유형별로 텍스트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분석 사례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짚어보겠다.

4. 사회분야 학습만화 한중 번역에서의 ‘선택적 전유’ 유형별 사례

4.1. 텍스트 수용자의 집단기억 유지, 계승을 위한 선택적 전유

집단 구성원들은 대개 동일한 내용의 기억을 공유하게 되는데, 이러한 집단 기억은 그 집단 구성원들과 다른 집단을 구별 짓는 정체성을 형성한다. 또한 집단 외부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반면, 집단 내부에서는 지속성, 연속성, 동질성의 의식으로 그 구성원을 아우른다(양호환 2012: 382).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둘러싸고도 직접 겪은 내부 당사자와 외부 제3자의 시각이 다를 수 있고, 각 집단이 추구하는 이데올로기에 따라 해석의 견해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번역에서는 도착어 문화권 구성원들의 기억과 사고방식에 부합하도록, 그리고 도착어 문화권의 긍정적 이미지가 돋보이도록 조정하는 양상을 보였다. 출발어 텍스트 저변에는 출발어 문화권 구성원들의 집단기억과

이데올로기, 제도적 이해관계들이 구조적으로 현시화되어 있게 마련인데, 이를 도착어로 가감없이 그대로 옮겨졌을 때 도착어 독자들이 불편해하거나, 혼란스럽거나,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특정 국가에서 제작된 텍스트를 번역하고자 하는데, 해당 텍스트에서 도착어 문화권과 연계된 특정 이슈나 역사가 해당 언어로 다루어진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자. 이때 원저자는 도착어 문화권의 과거와 현재를 직접 겪은 내부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인의 시선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크며, 원저자 또한 자신이 속한 내집단을 더욱 긍정적으로 부각시켜 기술하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3자인 원저자가 기술한 자신들의 과거를 도착어 텍스트의 번역자는 도착어 문화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집단기억의 틀에서 수용 가능한 형태의 텍스트로 손질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적 전유’ 현상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습만화에서 더욱 유효화, 명시화될 수밖에 없다. 우선 출발어 텍스트를 여과 없이 그대로 재현할 경우 자국의 과거 이미지가 기존 교육이나 기성세대에 의해 고착적으로 형성된 집단기억에 어긋나 이해의 혼선을 겪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집단기억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독자들은 만화에서 습득한 지식을 그대로 흡수하여 자칫 잘못된 선입견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점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도착어 텍스트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도착어 문화권 내 수용자들의 집단기억을 유지, 계승하기 위한 ‘선택적 전유’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방식은 ‘내집단 긍정화’ 전략과 ‘외집단 부정화’ 전략 두 가지 방향으로 귀결되었다.

4.1.1 내집단 긍정화

내집단 긍정화 전략은 한국어 원문에서 직, 간접적으로 언급된 중국 관련 내용에 대해서 도착어 번역 시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 또는 은폐하거나 중국 내부의 시각을 적용하여 원문 기술을 다시 쓰기 하거나 중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보다 강조, 미화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1) 중국 내 특정 역사 사건에 대한 외부 시각 차단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된 특정 사건을 둘러싸고도 민중의 시각으로 보느냐 지배자의 시각으로 보느냐, 내부에서 보느냐 외부에서 보느냐, 가해자이나 피해자이나 등 각각의 입장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다르게 마련이다. 특정 장소, 특정 일시에 벌어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론이 저마다 분분하거나 다양한 견해차가 존재할 수 있다. 가령 외부의 객관적 시각에서는 명백히 비난받아야 할 사건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합리화하거나 자기 방어로 면책을 시도하려 하거나, 사건의 엄중성을 은폐 혹은 축소하려 할 수도 있다.

본고의 분석 결과 한국인 원저자가 중국의 특정 사건에 대해 외부자의 시각으로 기술한 부분이 중국 내 시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중국어 번역문에서는 중국의 내부적인 역사관과 집단 공유 기억에 맞추어 적극적인 조정이 가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에 제시된 사례 1)과 사례 2)가 대표적이다.

사례 1)

ST: 소련과의 충돌로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질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소련이 동유럽 국가들을 차례로 공산화해 나가는 데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았고, 1949년 오랜 내전 끝에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을 타이완으로 몰아내고 중국을 공산화하는 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지. (『새로 만든 먼나라 이웃나라-미국3, 대통령편』, p.203)

TT: 他害怕与苏联连续将东欧共产国际化, 杜鲁门束手无策。1949年, 在长期冷战的尾声, 中国共产党取得解放战争胜利, 国民党逃亡台湾。中国共产党在中国建立起社会主义国家。(연구자역: 그는 소련이 동유럽 국가들을 차례로 공산화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속수무책이었다. 1949년 오랜 냉전 끝에 중국 공산당이 해방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도주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에서 사회주의국가를 수립했다.)⁷⁾

사례1)의 ST에서는 공산주의의 세계 확산을 막고자 했던 미국 트루먼 대통

7) 본고에 제시된 사례들은 컷 단위로 실린 내용을 //로 구분하였으며, 컷 안의 대화체는 큰따옴표(“”)를 추가하고, 지문은 따옴표 없이 그대로 옮겼다. 각 사례에는 ST와 TT의 내용 비교를 위해 TT의 순서에 최대한 충실하게 번역한 연구자역을 추가하였다.

령의 외교 정책을 설명하면서 1949년에 종결된 중국의 국공내전 결과에 대한 트루먼의 대응도 언급하고 있다. 국공내전은 1927년 이후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사이에 일어난 내전이다. 1949년 당시 중국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본토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고, 장제스의 중화민국 국민당 정부는 공산당에 밀려 타이완으로 패주하였다. ST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을 타이완으로 몰아내고 중국을 공산화”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트루먼 대통령이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반면 TT의 해당 부분을 보면 공산당이 주도적으로 ‘몰아냈다’는 표현 대신 패배한 국민당이 타이완으로 ‘도주했다(逃亡)’고 수정되었다. 이는 국민당이 대륙에서 쫓겨났다고 기술한 ST의 표현이 중국 독자의 동조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역자의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이 공산화되었는데도 ‘트루먼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ST의 기술은 TT에서 아예 삭제되었다. 타국의 내정에 미국 대통령이 개입, 간섭할 수 있다는 사실을 TT에 굳이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다.

사례 2)

ST: 반면 부시는 1989년 6월 국민의 개혁 요구를 탱크로 몽갓 중국 톈안먼 사태에 눈을 감고 모른 척하여 국제 사회의 맹렬한 비난을 받기도 했다. “미국이 입만 열면 외치는 ‘인권’은 어디 갔나?” // “민주화 거부하는 중국에 미국의 이익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다!” // 입기 말이 다가오면서 부시는 점점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다. (『새로 만든 먼나라 이웃나라-미국3, 대통령편』, p.250)

TT: 전체 생략

사례 3)

ST: “미국은 중국과도 오래 전부터 교류를 해 왔어.” // 베트남 전쟁 후 1979년 국교 수립을 통해 정상화된 미중관계는 1980년대 들어 크게 진전되었으나, 1989년 ‘천안문 사건’으로 급격히 나빠졌다. 중국은 이때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됐지.” (『why? 미국』, p.175)

TT: “美国和中国很早就开始交流了。” // 越南战争以后, 美国和中国于1979年正式建交。两国关系在80年代有了很大的发展。(연구자역: “미국과 중국은 오래 전부터 교류를 시작했어.” 베트남 전쟁 후 미국과 중국은 1979년 정식 외교를 수립했다. 양국관계는 80년대부터 큰 진전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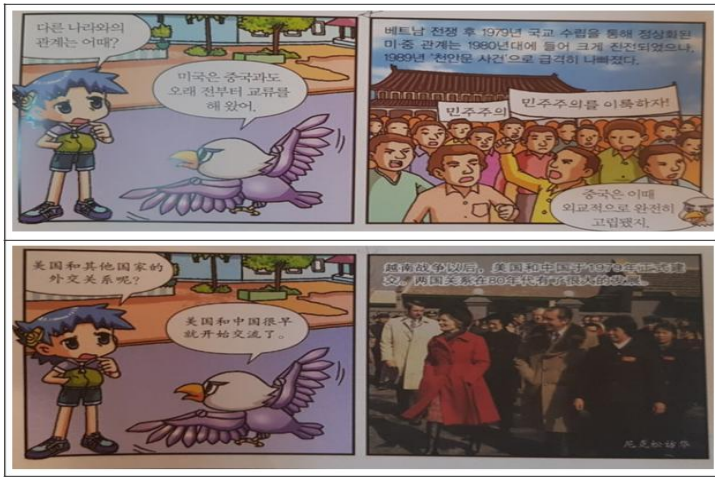
사례 2)와 3)은 ST에 중국 톈안문 사건에 대한 언급이 포함된 사례들이다. 천안문 사건은 1989년 6월 4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시위를 벌이던 학생과 시민을 중국군이 무력으로 진압한 사건을 말한다. 사례 2)의 ST는 중국의 천안문 사건에 대한 미국 부시 대통령의 태도를 기술함에 있어 ‘눈 감고 모른 척’ 목인했다가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천안문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의 개혁 요구를 탱크로 뭉갠’이라는 수식구를 동원함으로써 중국 정부가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다는 억압성과 강제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해당 부분이 중국어 TT에서는 일괄 생략되었다. 아래 이미지를 살펴보면 6컷으로 구성된 ST가 TT에서는 천안문 사건에 대한 외부인의 견해를 삭제한 채 3컷으로 압축 번역되어 있다.



사례 2) 한국어 ST

사례 2) 중국어 TT

사례 3)의 ST에도 중국과 미국의 역사적 관계를 기술하는 부분에서 1979년 국교수립을 통해 진전되다가 ‘1989년 천안문 사건으로 급격히 나빠졌다’, ‘중국은 이때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됐지’ 등과 같이 천안문 사건에 대한 외부의 견해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TT에서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중미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사실은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미지 또한 ST에서는 당시 천안문 광장의 모습을 연상케하는 일러스트를 삽입한 것에 반해 TT에서는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사진으로 대체하였다.



위: 사례 3) 한국어 ST / 아래: 사례 3) 중국어 TT

(2)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미화

현재 중국은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공산당 일당 독재를 실시하며 사회주의를 공식 지배 이데올로기로 지향해왔다. 실제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조에는 “중국은 공산당의 영도 아래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인민민주주의독재와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순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천착했던 마오쩌둥 시기부터 경제 현대화를 통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추구했던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기를 거쳐 ‘중국몽’을 내세워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강조하는 현재 시진핑 시기⁸⁾에 이르기까지 중국 지도자들도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기본 축으로 하는 정치적 노선을 걸어왔다. 따라서 이미 사회주의에 익숙해진 구성원들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호의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는 반면, 반대 성향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태도를 나타내거나 편견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8) 「시진핑 민족주의가 중국의 불평등 해결할 수 있다」 [출처: 중앙일보 2017년 12월 26일자 기사 <http://news.joins.com/article/22232974>]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에 익숙한 한국인들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ST에서도 사회주의 국가 이데올로기의 획일성, 독재성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기술하고 있다. 주로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언급에서 공산주의의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는데, TT에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상당 부분 걸러내고 수위를 대폭 조절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과 정치적으로 유사한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 독자들에게 공산주의를 ‘펼하’하는 원저자의 발언을 직접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사례 4)

ST: 북한의 공산주의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장 극단적인 스탈린주의를 고집하고 있지.// 스탈린주의란 무력으로 국민의 저항을 막고 // 비밀경찰을 풀어 온 국민을 감시하며 // 한 사람의 독재 권력자가 황제처럼 모든 권력을 쥐고 // 공포분위기 속에서 독재정치를 하는 비민주적인 공산주의야.// “수령의 지시에 거역하는 것은 곧 당에 거역하는 반동이다”, ‘무조건 복종’ (『새로 만든 먼나라 이웃나라-우리나라』, p. 93)

TT: 朝鲜的社会主义是世界上唯一坚持着“斯大林主义”的社会主义。// 不允许用武力解决问题, 人们不愿意生活在被压迫的社会里 // 朝鲜人民爱戴他们的领袖, // 社会各族人民以一种平等的思想共处, 和以前不同。// ‘平等’ (연구자역: 북한의 사회주의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스탈린주의’를 견지하고 있지.//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사람들은 억압된 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북한 인민들은 그들의 지도자를 흠모하고.// 이전과 달리 사회 각계가 평등한 사상으로 상생하고 있어.// [생략], ‘평등’)

사례 4)는 스탈린주의에 대한 저자의 견해가 담긴 부분이다. 저자는 스탈린주의의 ‘극단성’, ‘무력성’, ‘공포성’, ‘독재성’을 부각시키며 민주주의와 대별되는 부정적 측면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TT에서는 스탈린주의 앞의 ‘가장 극단적인’이라는 수식어가 생략되었으며, 공포적인 독재정치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ST의 내용이 거의 사라지고 ‘평등’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운 긍정적인 논조로 바뀌어 있다. 이 부분은 해당 컷의 시각적 이미지에서도 변형이 발견된다. ‘수령의 지시를 거역하는 것은 곧 당에 거역하는 반동

이다’라는 ST 대화체 부분이 TT에서는 아예 삭제되었으며, ‘무조건 복종’이라는 문구는 ‘평등(平等)’이라는 단어로 대체되었다.



사례 4) 한국어 ST

사례 4) 중국어 TT

사례 5)

ST: 북한의 김일성 전 주석은 어때?// 그는 북한 주민의 눈과 입을 막고 철저한 세뇌 교육으로 사고 능력을 박탈하면서 황제 이상 가는 절대 권력을 휘두른 독재자였지// 또 변화하는 세계정세를 읽지 못하고 변화를 거부해 //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로 전락시킨 장본인이야// (『새로 만든 먼나라 이웃나라-우리나라』, p. 180)

TT: 朝鲜的金日成主席怎么样? // 他被朝鲜奉为伟大的领袖, 实行关闭政策, // 不去了解世界形势, 还拒绝发展, 因此朝鲜的经济发展是非常缓慢的。(연구자역: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어때? // 그는 북한에서 위대한 영도자로 떠받들어졌고, 폐쇄정책을 실행했지 // 세계정세를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고 발전도 거부해서 북한의 경제 발전은 매우 더뎠어.)

사례 5)의 ST에도 북한의 지도자를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독재자’, ‘세뇌 교육으로 주민들의 두뇌를 마비시킨 절대 권력의 소유자’,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시킨 장본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는 출발어 문화권에서는 보편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독자들도 쉽게 수긍한다. 그렇지만 TT에서는 해당 부분이 대거 걸러지고 ST에 드러난 북한 지도자의 독재성, 세뇌교육에 따른 이념의 편협성과 몰개성화 성향 등에 대한 언급들이 거의 여과되어 드러나지 않는다.

(3) 중국의 미묘한 현안에 대한 외부 견해를 내부 시각으로 조정

중국이 대내외적으로 내세우는 ‘하나의 중국(一个中國)’ 원칙은 중국의 합법적인 정부는 오직 하나임을 주장하는 이데올로기이다. 이는 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 타이완은 나눌 수 없는 하나임을 공식화하고, 중국 대륙 내 소수민족들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최근 중국이 호텔, 항공사, 의류업체 등 글로벌 기업들이 타이완, 홍콩, 티베트 등을 독립국가로 취급해 표시한 것에 대한 공식 사과와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나 타이완이 유치한 국제스포츠포츠대회 개최권 박탈을 위해 압력을 행사한 사실⁹⁾들만 봐도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관철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관련 이슈에 대해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중국과 별개로 하나의 독립된 나라라고 주장하는 타이완이나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원하는 티베트, 신장 위구르 등 일부 지역의 목소리를 묵살함으로써 내부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정통성에 근거한 정당한 논리라고 여기지만 정작 타이완이나 해당 소수민족, 외부의 제3국들이 보는 시각은 판이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이처럼 집단 간 견해차가 큰 민감한 이슈들이 번역에서 다루어진 경우, 중국어 TT의 기조는 내부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관점에 편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례로 ST 저자가 외부인의 시각으로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거론한 내용이 있는데, TT에서는 이 부분이 철저하게 중국 내부의 시점과 기준에 맞추어 재기술되었다.

사례 6)

ST: ‘하나의 중국’이 무너지는 것은 곧 분열과 혼란, 전쟁을 의미하기에 이 정책과 이념은 앞으로도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중국 정부가 도토리만한 타이완을 그대로 두고 있지만 타이완이 하나의 중국에 속하지 않는 다른 중국임을 고집하거나 중국에서 분리된 독자적인 나라라고 주장하면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도 ‘하나의 중국’이라는 기본 이념 때문이지. (『새로 만든 먼나라 이웃나라-우리나라』, p. 27)

TT: “一个中国”倒下就意味着分裂和战争。这一基本国策和理念以后也不会

9) 「대만 유치한 ‘동아시아인 유스게임’, 중국 압박에 취소 날벼락」 [출처: 중앙일보 2018.7.25.일자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2833559>

改变。中国政府对台湾一直保持宽容的态度。台湾与大陆之间隔着一条海峡，两岸隔海相望，交流日益频繁。(연구자역: '하나의 중국'이 무너지는 것은 곧 분열과 전쟁을 의미하지. 이 정책과 이념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거야. 중국정부는 타이완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타이완과 중국 대륙은 해협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안이 마주보고 있어 교류가 날로 빈번해지고 있어.)

사례 7)

ST: 중앙아시아와 접한 신장에는 이슬람교도가 많이 살고 있어서 이슬람 독립 국가를 세우겠다는 분리주의자들이 맹렬한 투쟁을 벌이고 있고 티베트에서도 분리 독립을 위해 치열한 투쟁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투쟁은 곧 '하나의 중국'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이므로 중국은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들의 분리 독립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거야.(『새로 만든 먼나라 이웃나라-우리나라, p. 28)

TT: 中国是个多民族国家，面积最大的一个省级行政区是新疆。经过各民族的艰苦斗争后解放，而西藏也是1950年才解放。任何试图从“一个中国”中脱离出去的行为，中国是绝对不会允许的，所以不管付出多大的代价，也会斗争到底。(연구자역: 다민족 국가인 중국에서 면적이 가장 큰 성급 행정구는 신장이지. 그곳 민족들은 힘겨운 투쟁을 거쳐 비로소 해방되었지. 티베트 역시 1950년에 해방되었어. '하나의 중국'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행위들은 중국이 절대 허용할 수 없으며,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투쟁할거야.)

상기 사례 6)과 7)을 보면 ST와 TT의 담화 시각이 전혀 상반되게 바뀌어 있음이 발견된다. 사례 6)의 ST에는 타이완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어긋나는 주장을 할 때마다 중국이 '전쟁도 불사할 만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내용이 직설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TT에서는 중국과 타이완의 갈등적 프레임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중국정부가 타이완에 매우 관대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양안 간 교류의 빈도도 날로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ST의 내러티브를 중국 내부의 관점으로 철저히 재가공하였다. 사례 7)의 ST 상에는 신장지역 이슬람족과 티베트가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위해 현재까지도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티베트의 분리 독립 운동은 중국 당국이 내부적으로 매우 날카롭고 강경하게 대처하는 사안이다. 다른 소

수민족들의 독립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강화해 왔다. 따라서 중국 내 일부 지역에서 분리 독립 투쟁이 현재진행형임을 그대로 노출시켰던 ST의 기술 부분은 TT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대신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티베트가 (중국 정부에 의해) 해방되었다’는 내용으로 전면 대체되었는데, 여기서 ‘해방’이라는 어휘를 선택한 것도 중국 내부의 관점을 관철시키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 분리 독립 운동 주체들이나 외부인들은 중국 정부가 이들 지역을 점령한 후 강제 편입시킨 것이라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지만 TT에서는 이러한 외부 시각을 최대한 은폐, 차단한 채 내부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내러티브를 새롭게 생성하고 있다.

(4) 자국의 부정적 이미지 축소 및 약화

내집단 긍정화 전략의 또 다른 유형으로 자국의 부정적 이미지 혹은 가해적 행위를 TT에서는 축소 묘사하거나 약화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간혹 중국의 특정 ‘행위’나 ‘성향’을 제3자 혹은 피해국의 입장에서 묘사한 부분들이 ST 상에 등장하는데, TT에서는 중국의 침략 행위를 최대한 미화, 합리화하거나 중국이 특정 사건과 무관해보이도록 처리하는 등 적극적인 변용이 이루어졌다.

사례 8)

ST: 중국 정신의 핵심은 통일과 평화로, 중국인의 정신은 바로 세계주의지. 그러나 ‘통일과 평화’란 곧 통일을 위한 평화였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중국 주변의 반도들은 무력으로 중국에 속해야 했고 이는 자주 독립의 길을 걷는 변방국가는 중국의 침략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한다는 의미였어. 그 대표적인 희생양이 바로 한국 아니겠어? (『새로 만든 먼나라 이웃나라-우리나라』, p. 19)

TT: 统一与和平是中国思想的核心, 这正是世界主义。“统一与和平”就是为了统一的和平。在古代, 中国用武力迫使朝鲜等周边国家乖乖臣服于中国, 朝鲜就是其中的典型。(연구자역: 통일과 평화는 중국 사상의 핵심으로, 이것이 바로 세계주의지. ‘통일과 평화’는 곧 통일을 위한 평화였어. 고대에는 중국이 무력으로 주변 국가들을 단순히 중국에 복종하도록 만들었는데, 조선이 바로 전형적인 예였지.)

사례 9)

ST: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이 남한을 무력 침략하면서 6.25전쟁이 시작되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즉시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 “그러나 북한군이 물러나기는커녕 중공군까지 전쟁에 참가하면서 전쟁은 더 확대됐어.” (『Why? 일본』, p. 96)

TT: 1950年6月25日凌晨, 朝鲜战争爆发。// “以美国为首的‘联合国军’也参与了进来, 战争规模逐渐扩大。”(연구자역: 1950년 6월 25일 새벽,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 “미국을 필두로 한 ‘유엔군’도 참여하면서 전쟁의 규모가 점점 커졌다.”)

사례 8)의 ST는 중국이 역사상 주변 국가들을 속국으로 통합하거나 조공관계를 맺기 위해 끊임없이 침략을 감행했고, 그 대표적인 희생양이 한국이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반면 해당 부분의 TT를 살펴보면 침략 주체인 중국의 행위가 훨씬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침략의 일방성과 강제성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았다. 주변국들이 중국의 침략에 ‘끊임없이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과 ‘무력으로 중국에 속해야 했다’는 내용은 ‘주변 국가들이 순순히 중국에 복종했다’고 전환되었으며, 한국이 ‘전형적인 희생양’이었다는 구절은 ‘전형적인 사례’라는 표현으로 대체하여 중국의 가해적 측면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사례 9)의 ST에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이 남한을 무력 침략한’ 것이 한국전쟁의 발단이 되었으며,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군 철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공군까지 전쟁이 참가하면서 전쟁이 확대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중국의 개입이 한국전쟁이 본격화된 원인 중 하나라는 ST의 관점은 여과 처리되어 TT에서 자취를 감췄다. TT에서는 오히려 ‘미국을 필두로 한 유엔군이 참여하면서 전쟁의 규모가 점점 커졌다’고 화제를 새롭게 전환함으로써 해당 사건에 대한 중국의 책임 소재를 담화 이면으로 감추고 있다.

사례 10)

ST: 그러나 두 나라의 국민은 모두 철두철미한 개인주의자이자 // 그 무엇을 위해서도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이기주의자이기도 하지. (『새로 만든 먼 나라 이웃나라-우리나라』, p. 56)

TT: 这两个国家的国民有很强的代表性, 他们都热爱民主和自由. (연구자역: 이 두 나라 국민이 지니는 전형적인 특성은 민주와 자유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사례 11)

ST: 중국인은 세계가 다 알 듯이 한번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면 여간해서 나오지 않는// 지독한 구두쇠이며 철저한 경제관념을 지닌 민족이거든// (『새로 만든 먼나라 이웃나라-일본 1-일본인편』, p. 168)

TT: 人们存钱已经成了习惯, 中国人也是经济观念深入骨髓的民族。(연구자역: 중국인들은 저축이 이미 습관화되어서 경제관념이 뼈속 깊이 박힌 민족이거든.)

사례 10)과 11)의 경우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긍정적인 담화로 전환한 사례다. 상기 사례 10)의 ST는 프랑스와 중국 두 나라의 역사적 공통점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중국의 국민성에 대해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초점을 맞춰 부정적인 뉘앙스로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부분의 TT는 ST와 달리 ‘민주와 자유를 사랑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긍정적으로 각색하고 있다. 사례 11)의 ST에서도 저자는 중국인들을 ‘한번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않는 지독한 구두쇠’라는 냉소적인 어조로 묘사하였지만 TT에서는 부정적 어감이 사라지고 ‘저축이 습관화’되어 있다는 긍정적 어조로 전환되었다.

4.1.2 외집단 부정화

분석 결과 외집단 부정화 전략은 중국 외 다른 나라의 부정적, 공격적 이면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킨다거나 중국이 타국으로 인해 입은 피해 상황을 더욱 표면화, 구체화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1) 타국의 가해자 이미지 강조

앞서 자국의 가해자 이미지를 상대적으로 축소했던 것과는 달리 타국의 가해자 이미지는 보다 구체적이고 유표적으로 드러내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중국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라면 가해 주체의 주도성이 더욱 가시화되는 방향으로 담화가 조직되고 있다. 다음의 사례 12), 13)는 과거 일본의 침략행위를 거론하는 부분이다.

사례 12)

ST: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어. 이것을 기반으로 제1차 세계 대전에서는 영국, 미국과 함께 연합군에서 싸웠지. (『Why? 일본』, p. 78)

TT: 日本通过中日甲午战争和日俄战争掠夺了大量财富, 经济获得巨大发展. 以此为基础, 日本才有实力参与第一次世界大战, 与英国、美国等国结成协约国. (연구자역: 일본은 중일 갑오전쟁과 러일전쟁으로 대량의 재물을 약탈하여 커다란 경제 성장을 얻었어. 이를 기반으로 제1차 세계 대전에 참여할 실력을 갖추고 영국, 미국과 함께 연합군에서 싸웠지.)

사례 13)

ST: 일본의 태도 또한 마찬가지로였지. // 이웃나라를 강제로 점령해 착취하고 우리 국민을 전쟁터, 탄광과 공사장으로 끌고 갔으며 // 우리나라 처녀들을 군인들의 노리개로 데려간 잘못을 사과 한마디 없이 덮고 넘어가려는 거냐? // “우리는 충분히 사과하고 보상했다. 언제까지 과거 문제를 묻고 늘어질 거냐?” (『새로 만든 먼나라 이웃나라-일본 1-일본인편』, p. 15)

TT: 日本的立场也毫不动摇……// 那时, 韩国被日本强行霸占, 我们的先辈任人宰割, 战场、矿场和工厂处处都是同胞的影子……// 我们的女同胞更是惨遭禽兽凌辱……// 而此时, 日本却吝啬地连一句“对不起”都不肯说, 这简直让人气愤至极!

(연구자역: 일본의 입장이 흔들림이 없었지……당시 한국은 일본에게 강제로 점령당해 선조들이 무턱대고 유린당하고 전쟁터와 탄광, 공장 곳곳으로 끌려갔어. 더구나 여성들은 짐승과도 같은 처참한 능욕을 겪어야 했지……// 그러나 일본은 인색하게 사과 조차 하지 않고 있어 사람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게 하고 있다.)

사례 12)를 보면 ST 상에 일본이 전쟁 덕분에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고 언급된 부분이 있는데, 해당 TT에서 ‘대량의 재물을 약탈(掠夺了大量财富)’했다는 행위가 추가되었다. 일본 경제 성장의 직접적인 계기가 전쟁 중 일본이 자행한 재물 약탈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짚어냄으로써 일본의 공격성을 더욱 선명하게 각인시키고 있다. 사례 13)은 일제 식민 지배를 받던 시절 한국인들이 일본으로부터 당한 피해 상황과 이미 사과를 했다고 억지논리를 펼치는 일본의 입장을 다루고 있다. 현재까지도 국제 현안으로 남아 있는 위안부 문제는 중국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에 ST 상의 ‘처녀들을 군인들의 노리

개로 데려간 잘못'이라는 표현은 TT에서 '여성들이 짐승과도 같은 처참한 능욕을 겪어야 했다'는 극단적이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ST 상에 등장하는 '충분히 사과하고 보상했다'는 일본의 변명을 TT에서는 아예 배제시킨 채 '사과조차 하지 않아 사람들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하고 있다'는 논조로 재기술함으로써 일본의 가해성과 책임 회피적 태도를 더욱 강조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2) 자국의 피해 상황 부각

외집단의 가해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 외에 타집단으로 인해 입은 중국의 피해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강조하여 번역한 사례도 포착되었다. 이는 중국의 피해사실을 전경화함으로써 외집단의 부정적 이면을 드러내는 동시에 역사에 대한 도착어 독자들의 집단기억을 소환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유도한다.

사례 14)

ST: 간토대지진

1923년 도쿄, 요코하마 등 간토 지방에서 대지진이 발생하여 10만여 명의 사망자를 냈다. 지진 이후 한국인이 방화, 약탈을 할거라는 유언비어가 퍼져 수천명의 한국인이 학살되었다. (『Why? 일본』, p. 74)

TT: 關東大地震

1923年, 東京、橫濱等關東地區發生了大地震。死亡人數達15萬。地震之後, 有謠言說旅日的朝鮮僑民趁亂在日本放火、掠奪, 導致數千名朝鮮僑民遭到屠殺。來自中國溫州、麗水的七百餘人也慘遭日本人殺害。(연구자역: 1923년 도쿄, 요코하마 등 간토지방에서 대지진이 발생해 사망자가 15만 명에 달했다. 지진 이후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방화, 약탈을 할 거라는 유언비어가 퍼져 수천명의 한국인이 학살되었다. 중국 원저우, 리웨이에서 넘어간 중국인 7000여명도 일본인에 의해 살해 당했다.)

사례 14)는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일본이 저지른 조선인 대학살 사건을 다룬 내용이다. 대지진으로 초토화된 일본에서 조선인들이 흉악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조작된 소문이 퍼지면서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을 무참히 학살했는데,

당시 중국인 사상자들도 상당수에 달했다. 상기 사례의 ST 상에는 중국의 피해 사실이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TT에서는 중국인들의 피해 현황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추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2 텍스트 수용자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한 선택적 전유

앞서 언급했듯이 학습만화는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고 지식 인지 및 흡수 속도를 향상하는 등의 교육적 기능이 우선시되는 장르다. 따라서 학습만화 텍스트에는 주로 아동, 청소년 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하면서 학습 가치가 높은 내용으로 채워져야 한다. 본고 분석 결과 당초 한국 독자들을 위해 집필된 ST는 중국어로 번역, 출간되면서 정보 제공 목표군인 중국 독자들에게 보다 밀착적인 내용으로 재구성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도착어 문화권 독자들이 타국의 사례보다 자국의 사례를 더욱 친밀하고 용이하게 수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도착어 문화권으로 편입되면서 ST 기존 콘텐츠 중 일부가 정보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 또는 상실하거나 ST 문화권에 비해 이슈성이나 주목도가 저조한 경우에도 TT에서는 현지 독자들에게 더욱 가치 있는 정보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텍스트 수용자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한 선택적 전유라고 분류하였는데, 크게 ‘ST 맥락과 유사한 내집단 내 매개물로 대체’하거나 ‘데이터를 중국 기준으로 수정’하는 유형들이 여기에 속한다.

4.2.1 ST 맥락과 유사한 내집단 내 매개물로 대체

특정 대상에 대한 ST의 설명이 출발어 문화권의 맥락과 기준에만 맞추어져 있고 이를 그대로 TT상에 재현할 경우, TT 독자들의 이해도와 수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내용에 대한 흥미 유발 효과도 저하하게 된다. 분석 결과 학습만화의 번역에서는 아동, 청소년 독자들을 위한 교육적 기능을 고려하여 TT 독자들과의 연계성이 낮은 정보들은 TT 내 유사한 성격의 매개물로 대체하여 내러티브를 재구성하거나 보다 친숙하고 필요한 내용으로 교체하는 텍스트 조정 양상들이 흔하게 나타났다. 사례 15)와 16)은 각각 ‘일본’과 ‘미국’에 관한 ST에서 발췌한 사례인데, 두 나라와 한국과의 관계를 설명하거나 비교하는 방식

으로 구성된 부분이 TT에서는 한국 대신 중국을 기준으로 한 내러티브로 바뀌고 있다.

사례 15)

ST: “외부 주거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는 걸 조경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조경은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어.” // “우리나라 창경궁 안에 있는 연못은 왕궁에 있는 건데도 별다른 장식이 없잖아요?” // “그런데 일본 연못은 폭포와 분수대를 만들고 자연석으로 둘레를 꾸미기도 해서 아기가기한 것 같아요.” (『Why? 일본』, p. 109)

TT: “这是园林造景, 就是通过人工手段, 利用环境条件和构成园林的各种要素创作出所需要的景观。日本的园林造景吸了中国汉唐乃至宋代的山水庭院文化。” // “和中国的园林一样, 有山有水, 有石子铺成的小路, 有修剪得很漂亮的灌木。” // “可是瀑布、木拱桥、石灯、亭台楼阁又具有日本独特的风格。” (연구자역: “이것은 조경이라고 하는데, 인공적인 수단으로 자연환경과 정원을 구성하는 각종 요소들을 어우러지게 해서 필요한 경관을 만들어내지. 일본의 조경은 중국 한, 당대에서 송대까지 있었던 산수정원 문화를 흡수한 거야.” // “중국의 원림과 마찬가지로 산과 물이 있고 돌이 깔린 오솔길도 있고, 잘 다듬어진 관목들도 있네.” // “하지만 폭포, 아치교, 석등, 정자 누각은 일본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요.”)

사례 16)

ST: “미국에서 한국인 활동도 활발해. 미국 곳곳에 코리아타운이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 미국 속의 한국, 코리아 타운: 미국은 일본 다음으로 한국 동포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등지에 많이 정착하기 시작했다[...] 등지에도 대규모의 코리아타운이 있다. (『Why? 미국』, p. 181)

TT: “美国有很多中国人。唐人街随处可见呢。美国的唐人街: 唐人街也被称为“华埠”或“中国城”, 是华人在美国或其它国家聚居的地区。[...] 旧金山唐人街是美国最大的唐人街。 (연구자 역: “미국에는 중국인도 많아. 곳곳에서 차이나타운을 볼 수 있지.” // 미국 속의 차이나타운: 차이나 타운은 ‘화부’ 또는 ‘중국성’이라고도 불리며 중국인들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모여 사는 지역이다[...]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이 미국에서 가장 크다.)

사례 15)는 일본의 정원 조경 문화에 대한 설명 부분이다. ST는 일본 조경과 한국 조경의 차이점이 담화의 주요 화제이지만 TT에서는 일본의 조경 문화

가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 일본 조경과 중국 조경의 유사점과 차이점 등에 초점을 두어 새롭게 담화를 전개하고 있다. 사례 16)의 ST는 미국 내에서 한국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과 미국 속의 한국인 ‘코리아 타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만 TT에서는 미국 곳곳에 중국인들이 널리 정착하고 있다는 내용과 미국 내 ‘차이나타운’에 대한 정보로 교체되었다. 이는 해당 국가와 출발어 국가 간의 연계성보다는 중국과의 직접적인 연계성에 주목하는 것이 TT 독자들에게 더욱 필요하고 가치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사례 17)

ST: “특히 삶은 콩을 발효시켜 만든 낫토는 일본의 대표적인 음식이야.” // “어우 귀귀한 냄새, 청국장 같아요”. “맛도 이상해요” // “낫토는 한국의 청국장만큼이나 건강에 좋은 콩요리다. 남기지 말고 먹어줘.” (『Why? 일본』, p. 119)
 TT: “由黄豆发酵而成的纳豆就是日本比较具有代表性的豆制品。” // “呃，一股腐臭的味道有点像豆瓣酱。”，“口味也很奇怪。”// 纳豆跟豆瓣酱一样，有益身体健康。大家把它吃完，不要浪费。(연구자역: “노란 콩을 발효시켜 만든 낫토는 일본의 대표적인 콩제품이야.” // “어우, 귀귀한 냄새, 두반장 같아요.”, “맛도 이상해요” // “낫토는 중국의 두반장만큼이나 건강에 좋아. 남기지 말고 다 먹어줘.”)

사례 17)의 ST에는 일본의 전통음식인 낫토를 한국의 청국장과 비교하는 장면이 나온다. ‘청국장’이라는 음식은 TT 독자들에게 생경한 음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번역문 상에 적용했을 경우 낫토와 청국장의 유사성을 떠올리지 못하거나 비교의 근거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TT에서는 ‘청국장’ 대신 비슷한 성격의 ‘두반장’을 중심 어휘로 교체해 낫토와 두반장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담화를 전환하였다.

4.2.2 중국 기준 데이터로 수정

ST 상에 제시된 데이터가 한국 기준으로 작성된 경우 TT에서는 해당 데이터를 중국 기준으로 변경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ST 제작 시점과 TT 번역 출간 시점 간의 시간차로 인해 그 사이 정보에 변화가 생긴 경우에도 TT에서는 최신 업데이트 자료를 반영하고 있었다. 이 역시 TT를 접하게 될 최종 사용

자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정보를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례 18)

ST: “일본의 인구는 한국의 2배지만 GDP는 6배 이상일 정도지.” // “인구는 우리 2배인데.”, “생산량은 우리의 6배래.” // “게다가 일인당 국민소득은 4만달러로 중국의 약 10배란다.” (『Why? 일본』, p. 103)

TT: “日本の人口不到中国的三分之一，但是GDP却接近中国。” // “人口是中国的三分之一。”, “经济实力却相当.....” // “而且日本人均国民收入接近4万美元，是中国的6倍。” (연구자역: “일본의 인구는 중국의 3분의 1도 안되지만 GDP는 중국과 거의 맞먹을 정도지.” // “인구는 중국의 3분의 1인데”, “경제력은 상당하네.” // “게다가 일본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4만달러로 중국의 약 6배란다.”)

사례 18)의 ST에는 일본의 인구나 GDP 규모를 한국과 비교한 수치가 등장하는데, 이 부분의 TT를 살펴보면 기준대상이 중국으로 바뀌어 있다. ST에서 ‘일본 인구는 한국의 2배, GDP는 6배’라고 제시된 부분이 TT에서는 중국기준으로 정정되었으며, ‘일본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ST에서는 ‘중국의 약 10배’라고 제시되었지만, TT에서는 ‘중국의 약 6배’로 수정되었다. TT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번역 시점을 기준으로 한 최신 수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 나오며

지금까지 본고는 사회 분야 학습만화의 한중번역 텍스트를 중심으로 비판적 담화분석(CDA)의 관점에 입각한 ‘선택적 전유’ 양상들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해보았다. 한국 학습만화의 중국어 번역본을 분석한 결과 중국 내 목표 독자들을 우선 고려한 선택적 전유 현상들이 흔하게 발견되었으며, 텍스트 상의 이러한 유표적 변형들은 ‘텍스트 수용권의 집단기억을 유지, 계승’하기 위한 목적과 ‘텍스트 수용자의 관점에서 더 필요한 정보로 대체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로 실행되고 있었다. 첫 번째 ‘집단기억 유지, 계승을 위한 선택적 전유’는 도착어문화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에 대한 기억과 현행 이데올로기 틀에 맞추기 위해 시도되는 변이 유형인데, 크게 '내집단 긍정화', '외집단 부정화'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속한 내집단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으로, '타인'이 속한 외집단에 대해서는 보다 덜 긍정적으로 기술한다고 보는 CDA의 담화 속성과도 일맥상통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중 '내집단 긍정화'는 1) 중국 내 특정 역사 사건에 대한 외부 시각 차단 2)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미화 3) 중국의 미묘한 현안에 대한 외부 견해를 내부 시각으로 조정 4) 자국의 부정적 이미지 축소 및 약화 등의 세부 전략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외집단 부정화'는 1) 타국의 가해자 이미지 강조 2) 자국의 피해 상황 부각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두 번째 '텍스트 수용자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한 선택적 전유'는 학습만화 번역 텍스트가 도착어 독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교육용 도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교육상 더 필요한 정보들을 새롭게 반영하는 변이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은 'ST 맥락과 유사한 내집단 내 매개물로 대체'하거나 '중국 기준 데이터로 수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일부 책자의 사례들에 국한하여 정성적 측면의 분석을 주로 진행하긴 했으나 텍스트에서 도출된 '선택적 전유'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외부에 부정적으로 각인된 자국의 이미지를 최대한 지워내는 작업이나 TT에 친숙하고 필요한 정보로 대체하는 재맥락화 작업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비교적 명료하게 검증할 수 있었다. 또한 당초 본 연구는 중국 현지의 기출간 한국 학습만화 번역서의 양적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번역학적 관심을 열어보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향후 해당 분야 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고, 학습만화 장르 번역의 비판적 담화 분석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현주 (2009) 『학습만화의 스토리텔링 방식과 독자 반응에 관한 연구: 「초등 과학 학습만화 WHY? 시리즈」와 「살아남기 시리즈」 중심으로』,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남 (2016) 「한국 출판물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 『서지학연구』 65: 331-355.
- 김승민 (1989) 『학습만화의 교육적 기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진 (1999) 『로제 샤르티에(Roger Chartier)의 문화사에 대한 고찰: ‘전유 (appropriation)’ 개념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은혁 (2006) 『학습만화의 표현양식과 유용성 연구: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신화>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반디 (2011) 「만화의 독서 효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2): 123-139.
- 박미정 (2008) 「한일시사만화번역의 시각이미지 은유와 번역계약: 시사만화의 기호학적 특성에 대한 화용론적 접근」, 『번역학연구』 9(1): 117-144.
- 박형진 (2002) 『역사 학습만화의 사회과 교수-학습 자료로서의 내용 적합성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선기 옮김 (2009) 『문화 연구와 담론 분석: 언어와 정체성에 대한 담화』.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Barker, Galasinsk, 2001, *Cultural Studies and Discourse Analysis*)
- 백은지 (2011) 「성공한 학습만화 사례 분석」,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1 상반기 종합학술대회』, 4-11.
- 백진환, 한운옥 (2011) 「학습만화 독서지도 및 효과에 대한 실험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4): 213-229.
- 심수민 (2007) 『초등학생용 역사학습만화의 교육효과 분석』,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호환 (2012) 『역사교육의 입론과 구상』, 서울: 책과함께.
- 이동우, 엄홍석 (2002) 「만화를 활용한 프랑스어 교육과 기호학적 접근」, 『프랑스어문교육』 14: 69-88.
- 이승진, 강은원 (2014) 「학습만화시장의 발전 방안 연구 - 시장세분화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포럼』 42: 131-140.
- 이원표 (2015) 『한국 정치담화의 언어학적 분석-비평적 담화분석의 관점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문화사.
- 이종문 (2012) 「학습만화에 대한 초등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분석 연구」, 『한국

- 도서관·정보학회지』 43(2): 227-246.
- 이현경 (2018) 「영자신문 네 칸 연재만화 영한번역의 양상 고찰 -유머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9(2): 253-276.
- 임헌태 (2000) 『만화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중학교 3학년 어휘 수업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세룡 (2016) 『미셀 드 세르토, 일상생활의 창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전현주 (2009) 「역자의 가시성 -〈먼나라 이웃나라: 우리나라 편〉을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18: 235-269.
- 태지호, 황인성 (2014) 「영화에서 드러나는 한국전쟁에 대한 집단기억과 대중기억 만들기: <태극기 휘날리며>, <웰컴 투 동막골>, <포화 속으로>, 그리고 <고지전>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8(6): 279-301.
- López, Marisa Fernández (2000) 'Translation Studies in Contemporary Children's Literature: A Comparison of Intercultural Ideological Factors', *Children's Literature Association Quarterly* 25(1): 29-37.
- Mona Baker (2006) *Translation and Conflict: A Narrative Account*, New York: Routledge.
- Oittinen, Riitta (2006) 'No innocent act- On the Ethics of Translating for children', in Jan Van Coillie and Walter P. Verschueren (eds) *Children's Literature in Translation: Challenges and Strategies*, Manchester: St. Jerome, 35-45.
- Shavit, Zohar (2006) 'The Translation of Children's Literature', in Gillian Lathey (ed.) *The Translation of Children's Literature: A Reader*,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15-24.
- van Dick, T.A. (1997) 'The study of discourse', in T.A. and van Dick (eds) *Discourse as structure and process*, London: Sage, 1-34.
- van Dick, T.A. (2011) 'Discourse and Ideology', in T.A. and van Dick (eds) *Discourse Studies: A Multidisciplinary Introduction*, London: Sage, 379-407.

[Abstract]

**A Study on the Selective Appropriation in Educational Comics Translation:
Focusing on Korean-Chinese Translation Cases of
Educational Comics in Social Area**

Kang, Kyoung-Yi
(Ewha Womans University)

Educational comics is a genre of comics which has educational functions of convey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in interesting and effective ways. By adopting the perspective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 this study aims to develop types of selective appropriation as revealed in Chinese translation of educational comic books in Korean society, and to analyze its specific cases. Selective appropriation refers to a “phenomenon of transforming original or source texts (ST) by means of omission, addition, or replacement to strengthen, weaken, or beautify a particular part of narratives contained in the texts in the process of transl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zing Korean educational comic books translated into Chinese, strategies of selective appropriation were largely implemented with two purposes: 1) to maintain and succeed to collective memories of text recipient groups and 2) to provide alternative information that is more necessary from the viewpoint of text recipients. The first type of selective appropriation was materialized in a strategy of “making in-group positive and out-group negative,” while the second type included sub-strategies of “replacing source texts with medium in the in-group similar to ST contexts” and “revising them with Chinese-based data.”

- ▶ Key Words: Educational comics, CDA, Selective appropriation, collective memories, Korean-Chinese Translation
- ▶ 주제어: 학습만화, CDA, 선택적 전유, 집단기억, 한중번역

강경이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번역학과 BK21플러스 연구교수

jjongli1011@ewha.ac.kr

관심분야: 아동문학번역, 출판번역, 번역교육, 이데올로기, 담화분석

논문투고일: 2018년 8월 5일

심사완료일: 2018년 8월 31일

게재확정일: 2018년 9월 5일